

2000年代의 農村開發戰略과 課題

Rural Development Strategy in the 21st Century

朱 奉 圭

(서울大農大 農經濟科 教授)

〈目 次〉

- I. 問題의 提起
- II. 農村開發戰略設定의 重要性
- III. 農村開發戰略과 課題

I. 問題의 提起

오늘의 韓國經濟社會가 當面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問題의 一端은 經濟成長의 高度化에 隨伴된 都市化 및 工業化로 象徵되는 地域間 및 產業間의 不均衡과 社會階層間의 不平等의 深化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高度經濟成長戰略의 推進으로 農業部門과 非農業部門間의 成長發展 隔差가 擴大되어 產業構造에 큰 變化를 가져온 가운데 農業部門의 對GNP 比重이 縮少傾向으로 나타나 있고 동시에 產業部門別 就業構造面에서 農業就業者의 相對的인 減少趨勢 또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農業部門과 非農業部門間의 產業間 그리고 農村地域과 都市地域間의 兩地域間의 不均衡은 물론 社會階層間의 不平等의 緩和 내지 縮少는 現實의 時急한 政策課題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0年代의 未來指向的인 政策課題이기도 하다. 그럼으로써 韓國社會經濟의 發展은 반

드시 農業部門과 非農業部門의 相互連繫는 물론 農村地域과 都市地域間의 均衡開發의 方向에서 誘導되어야 하며 大都市 中心의 成長據點開發은 一但 止揚이 되고 地方中心都市 및 農村中心都市와 그의 背後地가 統合된 하나의 生活圈 속에서 農村과 都市가 均衡있게 連繫發展될 수 있는 開發戰略이 設定되어야 한다.

무릇 産業化社會에서 農村이 都市社會文化에 活力과 變化를 줄 수 있는 푸르름의 空間과 참다운 삶의 空間으로 認識定立되어야 함은 물론 能率社會로서 市場과 合理的 論理가 그리고 福祉社會로서 平等과 衡平의 論理가 制度化되고 生活化되는 農村社會가 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農村은 傳統的인 農本主義에서는 물론 經濟主義의 一方的 犧牲의 要求에서 벗어나 産業社會發展의 惠澤에 參與하면서 産業社會의 政治, 社會 및 文化的 安定基盤으로서 새로운 役割을 遂行케 하는 側面에서 開發誘導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2000年代의 韓國農村은 産業社會化를 指向하게 됨에 따라서 農村經濟의 活性化와 더불어 農村中心都市와 그의 周邊地域의 統合에 의한 農村社會福祉의 具顯化가 중요한 開發戰略으로 設定되어야 하며 農村開發戰略 또한 經濟

의인 側面과 더불어 社會的·文化的 그리고 環境的 側面에서의 複合되고 綜合的인 基礎에서 摸索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II. 農村開發戰略設定의 重要性

開發途上國의 經濟社會發展段階에 있는 우리 의 現與件下에서 產業構造問題가 크게 論議되고 있는 主된 理由로서는 國民經濟의 二重構造의 性格을 脫皮하려는 目的과 함께 先進國圈經濟와 不可分離의 關係下에서 經濟의 主體의 與件을 造成하기 위한 產業構造의 高度化追求의 必要性에서 비롯되고 있다.

事實인즉 韓國經濟는 그 동안 量的成長을 持續하여 오는 가운데 產業構造가 크게 變化케 되었는데 그것은 곧 非農業部門의 生産이 급속히 擴大되면서 傳統의인 農業部門에 潛在하여 있던 遊休勞動力을 吸收雇傭함으로써 附加價值 및 就業構造面에서 많은 變化를 가져온 데에서 나타나 있고 그의 變貌는 第2次產業의 比重이 擴大되고 相對的으로 第1次產業의 比重이 크게 低下되고 있는 現象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構造變化는 開發戰略上 工業化에 重點이 놓여져 온 데서 비롯되어 있는 結果가 되어 있는 것이 分明하나 이것은 產業의 急速한 發展過程에서 產業間的 階層的 隔差가 深化됨에 따라 農業部門은 工業部門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落後되어지게 되고 兩產業間에 二重的인 構造現象이 스스로 나타남에서 빚어진 結果의 것이기도 하다.

또한 經濟發展過程에서 農業部門의 成長이 他 產業部門에 比하여 뒤떨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傾向이며 趨勢라고 하고는 있지만 우리 나라와 같은 경우 특히 對外指向的 工業化를 追求하여

〈丑 1〉 產業構造推移

(單位: 10 億원, %)

項 目	1971	1975	1980	1983
國民總生産	18,797.4 (100.0)	26,113.5 (100.0)	37,205.0 (100.0)	45,718.1 (100.0)
農林水産業	5,122.0 (27.2)	6,308.0 (24.2)	5,372.5 (14.4)	7,400.0 (16.2)
鎭 工 業	3,288.8 (17.5)	6,143.7 (23.5)	11,226.5 (30.2)	13,868.6 (30.3)
(鎭 業)	370.5 (2.0)	514.8 (2.0)	520.1 (1.4)	634.2 (1.4)
(製 造 業)	2,918.3 (15.5)	5,628.9 (21.5)	10,706.4 (28.8)	13,234.4 (28.9)
S O C 및 其他	10,386.6 (55.3)	13,661.8 (52.3)	20,606.0 (55.4)	24,449.5 (53.5)
(建 設 業)	1,198.5 (6.4)	1,081.0 (6.9)	3,142.4 (8.4)	4,321.2 (9.4)
(電氣·가스·水道業)	197.6 (1.1)	361.7 (1.4)	733.6 (2.0)	986.9 (2.2)
(運輸·倉庫·通信)	889.8 (4.7)	1,446.8 (5.5)	2,859.6 (7.7)	3,521.3 (7.7)
(其 他)	8,100.7 (43.1)	10,052.3 (38.5)	13,870.4 (37.3)	15,620.1 (34.2)

資料: 韓國銀行

註: 1980年 不變市場價格 基準임.

註: ()는 構成比임.

온 開發戰略은 農業部門의 比重을 더욱 低下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서 經濟發展過程에서의 農業部門의 位置와 役割이 弱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도 사실이다(〈표 1〉 參照).

이러한 가운데 農家所得은 都市勤勞者家口의 所得水準과 對比하여 낮은 狀態에 있게 되었고 더우기 農業所得에 대한 依存度가 높은 狀態와 與件에 있었기 때문에 農家經濟의 活動結果는 剩餘蓄積보다는 生計維持水準의 生活을 겨우 營爲할 수 있는 程度에 머물러 있게 되었으며 農村은 또한 生産面에서 뿐만 아니라 生活面에서 傳統部門으로서의 構造的인 特性을 維持하여 올 수 밖에 없었다.

물론 1970年代를 前後하여 이루어진 급격한 都市化過程下에서 農村社會는 構造的인 變化를 가져오고 그의 主된 內容은 相對的인 閉鎖性으

로부터 急激하게 相對的인 開放性으로 變貌케 되었고 村落共同體의 特性的 瓦解와 함께 利益社會의 側面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됨과 동시에 家族主義와 同族集團의 性格이 弱화되는 傾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農村社會를 特徵지우는 農民들의 意識構造 역시 都市와의 生活空間이 좁혀짐에 따라서 많이 變貌케 되어 있다는 것을 看過키 어려운 사실로 되어 있다.

이러한 事實에도 不拘하고 農村生活環境은 아직도 低位한 水準에 머물러 있으며 農家生活의 質 또한 聚落構造의 前近代性과 農村道路 및 上下水道施設의 未備, 在來式住宅 그리고 生活便益施設의 未備, 非衛生的인 住居環境 등등으로 말미암아 매우 劣惡한 實情에 있을 뿐만 아니라 農村生活 또한 相對的으로 낮은 文化 및 福祉施設로 말미암아 그 質的改善이 沈滯되고 있는 狀態에 있다.

더우기 國民經濟에 있어서의 二重構造는 生活水準보다도 生活의 質的인 差異 즉 文化 및 福祉施設의 差異가 深化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都市와 農村地域間의 文化 및 福祉施設의 隔差解消는 중요한 開發課題가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劣惡한 農村生活 속에서 農民들의 生産意慾을 비롯하여 開發意志를 期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農村福祉水準을 가늠해 줄 수 있는 醫療費에 있어서도 극심한 隔差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農村福祉醫療施設 또한 低位性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것들은 農村社會의 豊饒를 期約하고 동시에 國民經濟의 健全한 成長을 위하여서도 중요한 開發課題로提起케 된다. 왜냐하면 持續的인 國民經濟의 安定的 成長은 農業生産의 增大와 食糧의 自給化追求에서 可能하다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農村生活環境의 向上增進과 더불어 그의 質的인 向上을 前提하지 않고서는 安定的인 成長을 期待할 수 없기 때문에 農業部門과 非農業部門間의 所得均衡과 農村 및 都市地域間의 開發均衡이 2000 年代의 未來指向的인 農村開發의 중요한 戰略課題로 設定되어야 한다는 認識과 더불어 그의 重要性을 認定케 된다.

Ⅲ. 農村開發戰略과 課題

2000 年代의 農村은 豊饒롭고 祝福된 福祉農村으로 浮上케 되는 側面에서 強力히 摸索되어야 한다. 따라서 農村開發戰略은 農村經濟의 活性化側面과 더불어 農村社會福祉의 具顯化側面에서 設定摸索되어야 하며 農村經濟의 活性化를 위한 開發戰略에 따른 重要課題는 農村地域經濟構造의 編成課題를 비롯하여 農業生産基盤의 擴大整備課題, 農業構造의 改善課題, 地域農業의 開發課題, 農產物價格의 安定化課題, 農地制度의 合理的 裝置課題, 農村開發의 地方行政課題 및 農村人口資源의 確保課題들이 摸索接近되어야 하고 동시에 農村社會福祉의 具顯化를 위한 開發戰略에 따른 重要課題로서는 農村開發空間의 廣域化課題를 비롯하여 農村中心都市의 據點開發課題, 農村下部構造의 形成促進強化課題, 農村教育文化施設의 擴充強化課題, 農村醫療福祉施設의 擴充強化課題들이 摸索接近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1. 農村經濟의 活性化를 위한 開發戰略과 課題

가. 農村地域經濟構造의 編成課題

農村經濟의 活性化는 農村工業과 서어비스産業의 開發을 통한 農業依存的인 農村地域經濟構造를 編成하는 側面에서 摸索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農家經濟의 脆弱의이며 低位의인 條件下에서 農村地域에 工業 및 서어비스 産業을 誘致하여 農村所得源의 開發을 促進함으로써 農家所得을 增大케 하고 農村所得構造를 高度化하여 農村經濟의 活性化를 기하고 이에 따라 都農間의 所得均衡을 이룩할 수 있는 發展을 도모케 한다 함은 중요한 的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最近 이와 같은 趣旨와 目的下에서 政府는 農村地域에 農工地區를 活性化하여 農外所得源을 開發케 함으로써 社會·經濟의인 側面에서 都農間의 所得均衡을 도모케 할 수 있는 施策을 樹立推進하고 있는 것이며 이 農工地區의 育成開發이 곧 國土綜合開發計劃에 의거한 工業地域 및 地方工業圈의 下部概念으로서의 農村工業圈開發이 工業開發의 據點이 되게 하며 地域綜合開發計劃의 有機的인 聯關下에 農村地域住民들의 在村 就業機會擴大를 통하여 都市工業의 地方分散과 農村人口의 定着 그리고 農家所得增大 등등 農村經濟의 均衡開發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는 趣旨에서 農工地區造成事業을 施行하고 있다 함은 周知되어 있는 사실이다.

물론 農工地區開發이 農民의 農外就業機會擴大에 의한 農外所得增加의 契機가 되도록 하고 동시에 農業所得의 限界를 克服케 하는 手段이라는 側面에서 우리의 關心을 集約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 國內 農產物價格이 國際價格에 比하여 점차 높아져가고 있으며 農產物價格支持의 擴大가 어려워 主穀生産에 의한 農業所得增大에 限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農家戶當 平均 耕地面積 또한 1.1 ha 程度의 零細한 營農規模條件에 있어서 持續的인 農業所得增大에 의한 農家所得增大를 期待하기 어려운 與件과 展望下에서 農工地區開發에 의한

農外就業創造와 이에 따른 農外所得增大의 摸索推進은 現實뿐만 아니라 來日의 課題接近이라는 點에서 중요한 開發戰略이라 할 수 있다.

다만 農工地區開發에 의한 産業育成開發은 農業에 聯關되는 關聯産業部門의 育成開發에 最大限의 力點을 두도록 하고 동시에 이 農業聯關産業部門에 農民들도 株式形式이건 혹은 持分形式이건 直接 運營에 參與케 하는 方向에서 誘導開發하여 農工地區造成事業의 活性化가 이룩될 수 있도록 함이 重要하다 하겠다.

나. 農業生産基盤의 擴大整備課題

食糧安保의 次元에서 食糧需給의 安定을 기하고 農村經濟의 活性化를 도모하려면 農業生産基盤의 擴大整備가 必須的이다. 왜냐하면 全天候營農을 통한 營農의 安定과 生産性向上을 기함에 있어서의 必須要因은 農業用水開發事業을 비롯하여 耕地整理事業, 排水改善事業 그리고 農業機械化事業 등등이 果敢하게 擴充整備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農業生産基盤事業의 擴充整備 가운데 農業用水開發事業과 排水改善事業의 改善推進에 있어서는 既存 灌溉施設에 對한 補完投資를 強化하고 동시에 田地의 利用率增大와 生産性向上을 위하여 田地에 對한 用水 및 排水改善事業에 力點을 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農業用水開發事業 및 排水改善事業에 대한 農民의 自發的인 參與를 誘導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政府의 補助率에 대한 上向調整도 중요한 課題라 할 수 있다.

耕地整理事業推進에 있어서는 田畝 등 全農地를 대상으로 하여 施行하도록 하고 동시에 現行의 小筆地 中心의 耕地整理方式을 營農機械化導入의 側面에서 整備調整하는 것도 重要하다 하겠다. 그 밖에도 營農機械化導入에 따른 稼動의

圓滑化와 移動上 制約條件이 되지 않도록 路幅에 對한 上向調整도 아울러 考慮하는 가운데 推進토록함이 重要하다 하겠다.

한편 農業機械化事業推進에 있어서는 共同利用體系의 바탕에서 推進하되 이러한 있어서 賃作業市場을 組織化하고 機械의 所有와 作業을 分擔하는 方法에 의하여 낮은 農機械의 普及率 下에서도 높은 機械化率을 달성할 수 있도록 推進하는 것이 重要하고 또한 어떤 局面에서는 農機械의 利用組織을 個別所有原則으로 하되 專業農家가 中心이 되어 機種別로 所有를 分擔케 한 後에 相互交換作業이 이룩될 수 있도록 하고 兼業農家の 경우는 그들로부터 作業을 委託받는 形式으로 發展시켜 나가는 것도 效率의인 方法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農機械의 機種別普及擴大는 移秧機 및 收穫脫穀機種의 一定水準의 目標達成側面에서 追求되어야 하며 동시에 中小型 農機械의 主軸에서 漸次的으로 大型 農機械化로 轉換토록 하여야 하되 大型 農機械化의 경우에는 그것을 購入活用할 수 있도록 低廉한 價格條件과 長期低利의 融資條件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農機械 共同利用組織의 育成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機能別·機種別 特性에 따라 共同利用의 組織과 類型을 달리하면서 推進토록 하고 運營主體者 또는 農機械 操作者가 創意力과 機動性을 發揮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操作者와 所有者가 가능한 한 一致되도록 誘導토록 하고 그 밖에 農家中心의 共同利用보다 耕地中心의 共同利用을 指向하는 方向에서 摸索推進토록 함이 重要하다 하겠다.

그리고 農業生産基盤의 擴充課題로서 看過하여서는 아니될 重要한 課題는 都市化와 工業化 展開下에서 나타나고 있는 農地轉用現象에 따른

對應措置라 할 수 있다. 農業用目的의 利用土地가 非農業用目的의 利用土地로 轉換되는 過程 즉 工業用地, 住居用地 및 公共用地 등등으로 轉換利用케 되는 農地轉用現象이 都市化 및 工業化의 擴散下에서 더욱 加速化될 것으로 豫測 展望되는 立場에서 農地資源을 단순히 保全한다는 側面 以外에도 食糧生産의 基盤確保의 側面에서 農地保全課題는 重要하게 取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 있어서 農地轉用을 最大限 抑制하되 不得已 轉用許可가 있어야 할 경우에 있어서는 綜合的인 土地利用計劃에 따라서 計劃的으로 施行토록 하는 것이 重要하다 하겠으며 동시에 農地保全을 위한 審議를 效率化하기 위해 農地審議委員會의 運營을 強化하고 한편으로는 農地의 重要度を 規定하고 있는 絶對農地制度를 效率的으로 運營하여 農地保全에 萬全을 기하는 것이 重要하다 하겠다.

農地轉用の 代替方案으로서의 干拓事業 및 開墾事業을 또한 果敢하게 推進하되 干拓事業은 莫大한 事業費가 所要되고 工事期間이 長期的인 데 더하여 投資收益이 長期間에 걸쳐서 回收되는 것이므로 長期的인 眼目에서 推進되어야 한다. 이러한 있어서 干拓地 開發豫定地域에 대한 基本計劃을 먼저 樹立한 다음에 開發規模를 年次的으로 增加시켜 나아가되 民間企業의 參與를 積極的に 誘導하는 側面에서 推進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開墾事業의 경우는 大圍地化 綜合開發事業으로 誘導하고 小規模 自力開墾事業은 可及的 民間開發의 次元에서 獎勵支援하여 誘導토록 하여야 할 것이고 동시에 開墾事業後의 事後管理에 대하여 徹底를 또한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農業構造의 改善課題

韓國農業을 能率的이고 近代的인 産業으로 發

전시키려면 基幹的인 農家階層에게 農地의 集中을 誘導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政策에서 除外케 되는 農家の 경우도 最少限의 生活維持와 所得安定이 가능케 될 수 있는 農業經營構造 政策의 樹立이 필요하게 되며 農家經營構造 政策에 있어서 가장 核心的인 課題인즉 農家の 長期的인 發展指向에 農家發展의 政策類型을 設定하고 그 類型別로 選擇의 政策支援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에 있어서 農家發展의 政策類型은 農家經濟의 性格과 그 農家の 希望을 基礎로 하여 다음과 같은 類型속에서 追求토록 함도 중요하다 하겠다.

첫째, 基幹的인 專業農家有成開發類型

韓國農業의 發展을 誘導하여 나아갈 基幹的인 專業農家를 中核으로 하여 農業發展을 主導해 나갈 수 있는 이 農家類型에게 모든 政策支援을 우선토록 하고 아울러 農地買入 또는 賃借를 통해 經營規模의 擴大를 追求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商業農 및 企業農時代를 맞이하게 되어 專門的인 生産農家로서 보다 向上發展된 生産技術의 資本集約的 農業를 통해 規模의 經濟를 追求키 위하여서는 營農意慾이 강한 先進農家の 營農規模를 擴大하는 方向으로 誘導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中規模的인 兼業農家有成開發類型

農家の 經濟的 與件을 勘案하여 불 때 農業를 통한 發展이 如意롭지 못하거나 非能率的인 것으로 判斷되는 농가의 경우에는 農外事業이나 農外就業를 통하여 所得의 安定을 기할 수 있도록 誘導함이 중요하고 또한 生産部門間的 相互補完的인 結合에 의한 複合營農으로 誘導토록 함도 중요하다 하겠다.

셋째, 零細的인 零細小農向上增進類型

農家로서의 脆弱點을 지니고 있는 零細小農階層에 대하여서 希望과 適性에 따라서 農村工業

에의 就業機會를 우선적으로 提供함과 동시에 社會保障政策을 強化하여 他農家와 均衡된 福祉를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能力에 따라 中規模的인 兼業農家에로의 轉換을 希望하는 零細農家에 대하여서는 中規模的인 兼業農家로 育成될 수 있도록 誘導轉換함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라. 地域農業의 開發課題

地域農業開發의 活性化는 地域別 特化作目的 側面에서 摸索토록 함이 중요하다. 地域特化이란 그 地域의 比較優位作目を 專門的으로 生産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나 이 地域特化作目は 農業地帶와 立地論에 입각하여 그 地域이 가지고 있는 諸般農業生産條件의 有利性에 따라서 指定開發코져 하는 作目を 말한다. 그동안 地域特化作目的 指定未備나 施行不振으로 生産過剩을 繼續的으로 反復하고 있는 가운데 價格不安定에 의한 農業所得의 不安定을 낳고 있는 與件에서 特化作目設定에 의한 地域農業開發을 實質化한다 함은 農村經濟의 活性化를 위한 중요한 政策課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地域農業開發을 地域特化作目에서 찾되 그것은 作目的 特化係數 또는 立地係數의 指標에서 찾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作目이 구체적으로 어느 地域에서 보다 密度높게 生産되고 있는가를 測定할 수 있는 方法으로 特化도가 있는데 이 特化度の 計測을 위하여 가장 많이 活用되고 있는 手段이 바로 特化係數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地域農業開發 또한 地域特化作目を 主軸으로 하여 推進하되 特化作目的 生産과 加工 및 流通이 相互的으로 連繫될 수 있는 側面에서 摸索되도록 하고 이러한에 있어서 이 地域에 加工處理 施設의 集中的인 投資를 도모하되 施設投資는 財政投融資와 더불어 地域農民參與의 民間投資

方式에서 誘導토록 함이 중요하다 하겠으며 民間投資形式의 農民參與方法으로서는 株式參與 및 農民共同基金出捐의 參與方式을 適切하게 考慮하면서 推進토록 함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밖에 地域特化農業開發을 實質化하기 위하여 農村地域에 分散立地되어 있는 農業高等學校 및 農業專門大學의 教育施行도 劃一的인 教育課程을 止揚하여 地域特化農業開發에 副應될 수 있는 實踐的이며 現實的인 教育課程으로 改編施行됨으로써 地域農業開發에 寄與토록함이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地域農業發展의 浮刻을 위하여서는 그의 組織化가 중요하다. 따라서 地域農業을 組織化함에 있어서 機械와 施設 등에 대한 共同利用을 도모하고 동시에 生産物 및 副産物을 農家相互間에 交換使用토록 하며 아울러 土地利用體系를 地域單位에서 調整하여 나아감으로써 個別經營의 限界를 克服하여 나아가도록 함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地域農業의 組織化야말로 個別經營의 經營成果를 向上시킬 뿐만 아니라 地域內 農業資源 등등의 利用效率을 增進케 하는 주요한 指標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 農畜産物價格의 安定化課題

農村經濟의 活性化가 이룩되려면 農家經濟의 向上增進이 뒤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農家經濟의 向上은 農畜産物價格의 適正保障과 安定化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農畜産物價格이 所得增大와 生産意慾을 鼓吹시키는 方向에서 摸索되고 講究되어야 함은 앞으로의 課題가 되어 있거니와 이에 더하여 중요한 또 하나의 課題는 安定化이다. 왜냐하면 價格이 不安定하여 지면 農家の 實質所得이 不安定해짐은 물론 그것이 期待價格을 不確實하게 하는 경우에는 農業經營의 專門化와 商業化를 沮害하는 要因으로 作用

되어 農村經濟의 活性化에 制約條件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專門的인 營農과 商業的인 營農 그리고 企業的인 營農時代가 展開케 되는 2000 年代의 韓國農村經濟의 活性化를 위한 과제는 農畜産物價格의 適正化 및 安定化로 集約케 된다. 農畜産物價格의 適正化 및 安定化를 도모키 위한 政策方向은 곧 所得의 向上增進을 기하며 동시에 所得의 不安定을 解消緩和케 함에 있다.

더우기 都農間의 所得隔差를 緩和解消하여 農業部門과 非農業部門間의 所得均等化를 圖謀함이 窮極의 目標이며 2000 年代의 農村經濟의 活性化를 통하여 解決하여야 할 未來指向的인 課題의 立場에서 農産物價格의 適正化 및 安定化의 摸索은 絶對的으로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農畜産物價格의 適正化 및 安定化摸索의 適切하고도 合理的인 方向設定은 곧 農業觀測事業의 活性化側面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農畜産物 需給計劃을 正確하게 樹立하고 段階別 價格安定政策을 蹉跎없이 推進키 위하여서는 農業觀測事業의 積極化가 大前提되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農畜産物觀測事業의 結果値에 의한 바탕에서 政府 및 民間次元에서 農民과의 品目別契約生産栽培를 強力히 擴大推進하여 生産의 安定과 價格의 安定을 통한 農家所得의 向上增大를 도모케함이 最善의 方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農畜産物價格의 適正化 및 安定化의 摸索은 農畜産物 品目別 生産播種時期와 出荷市場販賣時期의 適正한 調整을 통하여 實踐하는 課題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農畜産物價格政策의 變數로서 考慮하여야 할 課題의 하나는 價格自體의 統制보다는 供給物量의 生産

과 販賣時期의 地域的 調整側面에서 가능하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農畜產物價格의 適正化 및 安定化의 摸索은 過剩生産된 農畜產物의 價格暴落에 의한 不安定을 治療할 수 있으며 그에 對한 防波堤의 構築役割을 擔當케 할 수 있는 手段으로서의 備蓄事業의 擴大와 더불어 加工處理事業의 大대의 施行이 重要하다 할 수 있다. 이것은 政府次元에서 뿐만 아니라 民間次元에서 다같이 併行 施行하여 所期의 成果를 거두도록 함이 重要하다고 하겠다.

바. 農地制度의 合理的 裝置課題

近代的 產業經濟의 活性化에 대한 一環으로서의 農業經濟의 能率化가 이룩되기 위하여는 能率化의 主體的인 役割을 擔當하여야 할 基幹의인 農家의 育成開發이 重要하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農家의 經營主가 老齡化되어 가는 傾向에 있어서 農業의 非能率을 增大시키고 있다. 이러한 農家經濟의 現實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의 農村과 農業의 將來를 擔當하여 나아갈 基幹의인 農家を 選別的으로 集中的으로 育成하는 것이 不可避하다. 모든 農家經濟의 農業을 통한 近代化는 個別農家の 장래 意思와 資源의 與件 등에 差異가 있음을 감안할 때 不可能할 뿐만 아니라 결코 바람직할 수 없기 때문에 農村과 農業의 來日을 擔當할 農家育成이 重要하다.

그리하여 農家經濟의 類型과 性格에 따라서 農家經濟의 發展을 支援하는 새로운 政策構想이 필요케 된다. 農家經濟의 類型에 따른 發展支援은 곧 農業構造의 再編成을 의미하며 이러한 構造革新을 制度的으로 뒷받침하는 農地의 所有와 利用에 관한 새로운 秩序의 確立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農地改革法 이후 農地管理를 위한 農地法의 不在는 民法에 의한 農地의 相續과 細

分化가 助長되어 合法的인 不在地主를 增加시키고 있으며 農業生産力發展을 沮害하고 있는 要因이 되고 있기 때문에 非農民에 대한 農地相續을 禁止하고 젊은 農業人들의 農地購入과 擴大를 支援하는 農地의 所有와 利用의 合理化를 위한 制度的 裝置의 마련이 이룩되어야 하겠으며 이러한 制度革新을 통하여 近代的 產業으로 우리의 農業을 發展시켜 나갈 第2世代들이 農業에 參與, 活動할 수 있도록 함이 重要하다고 하겠다. 韓國農業의 將來를 擔當할 第2世代의 育成은 단순히 短期的인 金融支援의 側面에서가 아니라 도리어 制度革新을 통한 農業經濟秩序의 새로운 確立에서부터 着手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農村經濟의 向上 및 農家經濟의 能率化에 대한 가장 큰 制約條件의 하나는 經營規模의 零細性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基幹의 專業農家の 育成을 促進하여 經營規模를 擴大하고 生産性を 增大시키는 側面에서 追求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그것을 위하여서는 結局 農地의 基盤造成과 더불어 農地의 流動性提高를 促進키 위한 農地賃貸借制度의 改善과 그의 許容講究, 그밖에 農地所有上限線의 緩化調整이 制度的인 裝置面에서 마련되어야 함이 重要的 課題라 하겠다.

사. 農村人口資源의 確保課題

2000年代의 農村經濟의 活性化側面에서 중요한 課題는 위와 같은 課題들이 綜合連繫의으로 開發誘導되어야 하는 것이나 어느 면에서는 農村經濟의 活性化에 主役을 擔當케 되는 開發主導의 主體的인 人間資本 즉 人的資源의 確保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課題가 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오늘의 農村人口資源側面에서 볼 때 經濟成長의 高度化속에서 나타난 都市化 및 工業化下에서 農村의 有能한 人口資源이 非農業部門으로 流出轉化케 되는 現象이 빚어진 가운데 農村

人口資源面에서 中核的이며 主軸的인 役割을 擔當하고 있는 生産年齡階層의 大幅的인 減少에 대응하여 老齡階層이 漸増化되어 가고 있는 現狀下에서 農村經濟의 活性化에 커다란 障壁과 隘路로 作用되어 있다.

더우기 經濟成長의 持續化속에서 나타나게 될 來日의 農村人口資源의 貧困性問題를 감안하여 볼 때 農村經濟의 活性化에 主役을 擔當케 할 有能하고 中核的인 農村에서의 人的資源開發育成이 중요한 課題로 登場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위와 같은 視角속에서 農村經濟發展에 主役을 擔當케 하는 人的資源確保側面에서 營農後繼者育成을 強力히 推進하고 있으며 이것의 目的인즉 農村에 定着하여 農業을 營爲할 수 있는 意思와 能力이 있는 農漁村靑少年을 發掘하여 重點支援함으로써 앞으로 農漁村의 發展을 主導할 核心的인 營農指導者와 基幹營農人的資源을 養成하여 農漁業의 安定을 도모하고 農漁村社會의 安定을 主導할 人的인 基盤을 確保한다는 內容과 趣旨에서 營農後繼者育成이 이룩되고 있다 함은 周知되어 있는 事實이다.

그런데 營農後繼者育成事業推進에 있어서의 몇 가지 問題點으로서, 農產物價格安定이 아직도 適正水準에서 設定되어 있지 못하고 資金規模面에서 過少性을 禿치 못하고 있으며 또한 後繼者의 意識構造가 農業價値觀 및 天職觀 그리고 農에 對한 矜持와 自負心에 透徹한 意識側面에서 定立되어 있지 못한 事實 등등을 考慮하여 볼 때, 이들 問題들이 營農後繼者育成事業의 좋은 結實을 위하여 綜合的으로 講究되어야 할 課題라 할 수 있겠다.

또한 農村經濟의 活性化에 有能한 主役으로서의 農村人口資源確保課題는 日本의 例에서와 같이 農漁民後繼者育成事業을 國民學校 教育過程

에서부터 施行할 것은 물론 農業高等學校, 農業專門大學 그리고 農科大學을 中心으로 한 產學協同과 海外研修教育이 強化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農業士制度의 導入도 講究하여 불만한 課題라 할 수 있다고 하겠다.

農業士制度는 日本에서 實施되고 있는 制度인 것이나 이것은 農民의 社會的 地位의 評價를 提高시켜 職業的인 劣等感을 없애주고 엘리트農家を 선정하여 多角的으로 支援하는데 主된 目的을 두고 있으며 農業士制度는 靑年農業士育成事業과 指導農業士活動事業으로 나누어 推進하고 있다.

어떻든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農業價値觀 및 天職觀과 職業觀이 定立되어 있는 有能한 人的資源의 確保下에 農村經濟의 活性化가 이룩될 수 있도록 하는 農村人口資源의 確保方向을 營農後繼者 育成事業側面에서 內實性있게 推進하되 初中學校段階에서부터 農業과 農村에 興味를 가질 수 있도록 教育啓導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農業高等學校段階에서는 卒業後 就業意思를 表示한 卒業生들에 대하여서는 一定期間 特殊研修施設下에서 理論教育和 現場實習을 實施함으로써 穩當한 營農就業이 가능하도록 함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 밖에 獎學基金의 設置를 통하여 現行施行하고 있는 獎學制度를 基金擴大를 통하여 內實性 있게 推進토록 하며 아울러 農高 및 大學卒業者에 대한 兵役上의 特惠를 講究하는 것도 대단히 重要하다 하겠다. 또한 農民의 경우 靑壯年層農民에 대한 教育訓練이, 持續的인 營農意慾을 갖고 새로운 營農技術을 習得케 하는 方向에서 摸索推進되어야 함이 중요하다 하겠다.

아. 農村開發의 地方行政課題

農村經濟의 活性化摸索은 地方經濟와 農村經

濟發展에 直接的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各種法과 制度 그리고 中央政府의 計劃 등이 統合整備되어 相互的으로 連繫作用되도록 함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建設部の 國土綜合開發計劃과 國土建設綜合計劃에 따른 郡單位計劃, 그리고 內務部の 地方定住生活圈開發計劃과 落後地域開發計劃 및 農水産部の 農村地域綜合開發計劃 등등의 連繫調整이 絶對的으로 필요하여 또한 農漁村所得源開發法 및 農漁村近代化促進法 등의 統合整備도 農村經濟의 活性化次元에서 이룩되어야 하겠다.

그 밖에 農村經濟의 活性化를 위해 定住生活圈을 開發單位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地方行政單位와 一致시키는 行政區域의 調整이 必要하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農村開發이 開發單位와 行政單位的 不一致 및 不調和속에서 所期의 開發效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兩者의 一致를 前提로 推進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定住生活圈을 開發의 基本單位로 할 때에는 지금까지의 地方의 都市와 農村地域의 開發關聯事業이 事業中心 또는 品目中心으로 分散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事業推進을 定住生活圈單位에서 地方行政이 綜合推進케 함으로써 地域開發投資의 效果를 圖謀토록 함이 重要하다고 하겠다.

또한 農村經濟의 活性化를 위한 課題는 地方行政의 機能이 스스로 強化된 側面에서 摸索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그리함에 있어서 地方財政基盤의 強化가 반드시 이룩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곧 中央政府의 地方政府에 대한 國庫 또는 交付金의 支援方式이 果敢하게 이룩되어야 하며 이러한 가운데 地方行政이 自律性과 獨自性的 바탕에서 農村開發을 主導的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2. 農村社會福祉의 具顯化를 위한 開發戰略과 課題

가. 農村社會福祉具顯의 空間廣域化課題

農村社會福祉의 具顯化는 農村地域開發의 廣域化設定下에서 摸索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동안 農村社會福祉의 具顯은 주로 自然部落을 單位로 한 農村生活環境改善事業推進의 바탕에서 農漁村의 生産基盤造成事業과 所得增大事業의 連繫속에서 推進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農村의 豐饒로운 福祉社會의 窮極의인 目標達成을 위하여서는 農村地域開發의 廣域化空間에 의하여, 機能的 聯關係를 도의시킨 마을單位開發에서 탈피하여 一但 農村地域社會의 構造의인 變化와 住民의 生活圈擴大에 따라 보다 廣域化된 空間單位下에서 實質的인 開發이 摸索되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開發事業의 規模가 점차 廣域化되고 既存의 協同圈事業이 綜合的이고 體系的인 接近方法을 가지지 못한 것을 補完하여 農村地域住民의 共同協助를 地域開發의 次元으로 誘導하고 物理的인 宿願事業以外에 住民의 삶의 質을 向上시키기 위한 社會·文化·保健醫療 등의 서어비스施設의 擴充을 고려한 地域均衡開發을 도모키 위하여서 5~6개의 部落이 統合된 廣域圈을 設定하여 推進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와 같은 廣域圈開發事業內容이 주로 物理的인 農村下部構造形成促進事業에 置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農村住民의 삶의 質的인 向上을 위한 開發圈域으로서는 그 空間的인 範圍가 적기 때문에 體系的인 綜合開發이 또한 이룩되어 있지 못하고, 동시에 農村社會福祉의 具顯에 대한 內實化를 기하지 못하고 있는 形便에 있다.

그러므로써 農村地域住民의 生活圈의 擴大化를 기하고 동시에 農村住民의 삶의 質의인 向上을 위한 經濟·社會·文化·保健醫療 等等 諸般 서어비스施設의 內實化의 바탕에서 農村社會福祉의 具顯이 이룩될 수 있도록 農村社會福祉具顯의 空間廣域化設定이 우선 중요하다 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2000 年代的 農村은 福祉社會具顯의 場所的인 繁榮空間으로서 그리고 住民繁榮의 空間으로서 반드시 浮上되어 農村地域과 都市地域間的 均衡的인 開發의 窮極目標이 이룩되어야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나. 農村中心都市의 據點開發課題

農村은 農業을 生業으로 하는 地域住民들의 集團的인 部落으로 概念되고 있어서 農村地域住民들은 孤立分散된 不完全한 定住單位인 部落을 중심으로 삶을 營爲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그리하여 部落을 중심으로 한 삶의 터전인 農村은 部落을 하나의 獨立된 經濟·社會·文化·行政의 地域共同體로 具體化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部落을 閉鎖的인 地域集團으로 또한 實質化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속에서 農村과 大都市의 異常膨脹下에서 都市對 農村間的 社會的 葛藤과 緊張을 高潮化시키게 된 것이었고 이와 같은 葛藤과 緊張은 社會的 및 政治的 不安要因이 되고 있다. 이에 都市와 農村問題의 累積의 惡循環이란 社會的 不作用과 그의 深化는 經濟成長 그 自體를 制約하는 直接的인 要因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며 우리 經濟社會의 效率性과 衡平性을 오히려 惡化시키는 結果를 가져오고 있음으로써 高度經濟成長의 持續化와 더불어 經濟成長의 均衡化를 위한 農村都市環境의 改善戰略의 設定은 緊要하고도 切實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農村中心都市는 사실상 國土空間上的 都

市階層에 있어서 最下位의 都市로서 上位都市와 背後農村地域을 연결하는 役割을 擔當하는데 이것의 連結은 단순한 經濟上的 連結뿐만 아니라 文化的·社會的 및 政治行政的인 活動領域이 모두 連結케 되는 性格의 것이다.

그리하여 農村中心都市는 그 자체로서 有機的으로 연결된 政治·經濟·社會·文化 및 行政 등에 관한 秩序와 位置의 空間으로 되어 그것이 마침내 住民들의 社會活動에 直接 및 間接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農村社會를 이끌어 나가는 中心機能의 役割을 擔當케 되는 農村地域의 開發의 母體이며 媒介體로서 機能토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써 農村中心都市의 結節機能, 中心機能 및 據點機能은 農村經濟의 市場經濟로의 編入과 外部經濟로의 統合이 더욱 擴大되고 그렇게 되어 農村住民의 所得向上에 따른 各種 서어비스에 대한 充足欲求가 增大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그것이 農村住民들의 基本需要와 欲求를 充足시켜 그들이 보람과 矜持를 가지고 安定된 生活를 營爲할 수 있게 하는 空間이 될 수 있도록 誘導하여야 하고, 동시에 農村中心都市開發이 地域開發의 核과 據點開發로 作用될 수 있도록 開發誘導함이 중요하다 하겠다.

다. 農村下部構造의 形成促進強化課題

農村社會福祉增進은 農村社會間接資本의 擴充 즉 農村下部構造의 形成促進에서 追求되어야 한다. 그런데 農村社會福祉增進을 위한 農村下部構造의 形成促進은 그의 實績이 不振한 道路鋪裝을 비롯하여 通信網整備分野의 社會的 間接資本의 擴充이 果敢하게 推進展開되어야 한다.

물론 그동안 農村環境改善이라는 次元에서 農路와 더불어 農村道路가 많이 開發되고 鋪裝되기는 하였으나 앞으로 期待되는 農畜產物의 신속한 大量輸送과 農工團地의 造成 및 自家運轉

乘用車의 急速한 農村普及, 그리고 人口의 地域分散 등을 綜合的으로 考慮한 보다 높은 次元에서 農村道路整備事業과 農漁村通信網의 整備事業 등등 農村下部構造의 形成促進事業이 一層 強化된 속에서 推進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함에 있어서 農村中心都市를 軸으로 하여 마을과 마을間的 連結道路를 大幅的으로 開設擴充하여 鋪裝토록 하여야 하며 동시에 2000年代 農村通信網擴充에 있어서 農村의 電話導及率의 擴大를 大의으로 推進토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地方中心都市 및 農村中心都市와 그의 周邊農村地域을 連結하는 道路交通 그리고 通信網을 整備擴充하여 農民들에게 農外就業機會를 擴大함으로써 都市와 農村을 連繫統合케 하고 그렇게 하여서 農村과 都市地域間的 文化 및 福祉施設의 受惠側面에 差等없는 均等化를 圖謀토록 함이 중요하다 하겠다.

라. 農村教育文化施設의 擴充強化課題

農村社會福祉의 向上增進을 위한 2000年代의 未來指向의인 開發課題는 農村教育文化施設의 果敢한 改善側面에서 摸索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2000年代의 農村地域에서의 農民들도 先達國의 農民들이 누리고 있는 水準의 文化福祉生活를 누릴 수 있도록 最大限의 政策配慮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함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概念과는 달리 보다 다른 概念의 文化·福祉施設로서 農村內部の 就業機會와 教育機會의 擴充을 위한 產業施設과 동시에 教育施設 그리고 醫療惠澤의 均霑을 위한 保健醫療施設, 現代의인 文化娛樂生活의 享有를 위한 스포츠娛樂施設 등 近代의인 產業·教育·醫療·文化 및 리렉스施設 등등의 擴充開發이 또한 果敢하게 이룩되어 農村地域과 都市地域間的 教育文化受惠의 均等化 및 同質化

를 摸索토록 하여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教育文化施設의 擴充開發을 위하여서는 地方中心都市와 農村中心都市를 主軸으로 하여 推進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成長潛在力이 높은 地方中小都市를 地方定住生活의 中心地로 삼아 先導的인 成長産業을 우선 誘致하고 教育文化施設을 擴充하여 그것을 바로 農村中心都市로 連繫시켜 農村中心都市와 더불어 그의 周邊農村地域의 農村地域住民의 教育文化의 受惠가 都市와 對等한 水準에서 이룩되도록 하여야 함이 중요한 課題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都市와 農村地域間的 同質化 및 均衡化를 위하여 教育機會의 不均等解消와 教育의 質的隔差를 解消緩和하기 위한 側面에서 農村地域에 對한 教育投資를 果敢하게 擴大하고 地域의 特殊性을 勘案한 農村地域別 長期教育發展計劃을 樹立實踐토록 함이 중요하고 低所得階層의 農民子女들에 대한 公共 및 民間의 獎學金制度를 과감하게 擴充開發함도 중요하다 하겠다.

마. 農村醫療福祉施設의 擴充強化課題

2000年代의 正義로운 民主福祉社會의 建設을 위하여서는 福祉農村建設이 이룩되어야 하고 그것은 즐겁게 오래 살려고 하는 農村住民들의 基本欲求充足을 위한 醫療開發의 側面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農村地域住民들이 良質의 低廉한 醫療施設에 용이하게 接近할 수 있도록 農村中心都市와 그의 周邊地域에서의 診療中心의 醫療傳達體系가 確立되도록 하여야 함이 중요하고 또한 農村住民의 疾病도 多樣化되어 있는 것이 現實일 뿐만 아니라 專門的인 治療를 要하는 疾病이 急激하게 增加되고 있는 與件下에서 農村地域에 配置되는 醫療陣도 격어도 인턴 程度의 訓練을 마친 醫療陣으로 構成, 運營토록 하여야 함은 물

른이거니와 또한 條件附加 아니라 自發的으로 農村地域住民의 保健向上을 위하여 獻身奉仕하겠다는 使命感이 透徹한 醫療陣들이 配置되어 農村醫療의 向上增進에 의한 農村福祉社會의 具顯이 內實性 있게 이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課題는 政府에서 法的 힘을 빌려서 臨時方便으로 醫師만 配置하면 된다는 傳統的인 診療方式概念에서 完全히 脫皮하여 眞正한 마음에서 農村住民을 위한다는 熱意와 精誠이 깃들여 있고 동시에 矜持와 自負心을 갖는 醫師의 人的資源確保속에서 診療가 施行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診療를 擔當하는 醫師로서의 使命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待遇의 厚待가 뒤따라야 함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 밖에도 農村地域에 新規配置되는 醫師의 경우 農村의 社會經濟의 特性을 理解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任用과 동시에 農村教育專門機關에서 2~3 個月동안 農村實情에 대한 委託教育을 義務化시키는 課題를 研究檢討토록 함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물론 政府에서는 1981 년부터 國民醫療의 均霑을 도모키 위하여 全國 保健醫療網編成에 대한 研究事業을 土臺로 醫療傳達體系의 基本模型을 새로히 定立하고 診療圈을 設定한 바 있으며 이것을 1991 년까지 確定시킬 計劃에 있다 함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런데 이 計劃에 따르면 農村地域은 現在와 같이 保健所組織을 통한 第1次醫療傳達體系를 繼續的으로 維持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시에 第2次 國土綜合開發計劃의 一環으로 1982 년에 各道에서 樹立한 道綜合開發計劃에서는 農村地域에서 最少限 2次診療까지 解決토록 하는 方向에서 農村醫療를 推進토록 되어 있다.

이에 農村醫療福祉의 具顯이 農村地域間의 相

互連繫化와 廣域化의 바탕에서 이룩되도록 하고 동시에 農村地域住民들이 農村地域을 떠나지 않고 安定된 所得과 職業을 갖고 都市地域住民과 같이 便利한 生活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醫療施設惠澤을 都市地域住民과 똑같이 受惠받을 수 있도록 하여 農村醫療面에 實質化가 꼭 이룩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參 考 資 料

1. 韓國農業經濟學會, 「80 年代的 農政課題」, 1981. 4.
2. 韓國農業政策學會, 「農村工業開發과 農業構造調整」 1983. 7.
3. 農業協同組合中央會, 「農協年鑑」, 各年度版.
4. 農水產部, 「農業動向에 關한 年次報告書」, 各年度版.
5. 農業振興公社, 「農業基盤造成事業統計年報」, 各年度版.
6.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各年度版.
7. 韓國開發研究院, 「經濟社會政策協議會討議資料 및 內容」, 1980.
8. 大韓商工會議所, 「韓國經濟 20 年の 回顧와 反省」, 1982.
9. 全國經濟人聯合會, 「民間經濟白書」, 1984.
10.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마을綜合開發의 計劃的 接近」, 1984. 12.
11.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農村地域의 定住體系와 中心地開發」, 1984. 12.
12. 韓國農村經濟研究院, 「地域農業開發을 위한 農畜產物의 立地配置에 關한 研究」, 1985. 12.
13.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農工地區開發의 方向과 政策課題」, 1984. 12.
14.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農村醫療傳達體系의 問題點과 새로운 構想」, 1984. 12.
15. 崔在善, 「地域經濟論」, 法文社, 1980.
16. 朱奉圭, 「現代農業經濟學」, 博英社, 1983.
17. 朱奉圭, 「農村人口論」, 韓國放送通信大學出版部, 1983.
18. 朱奉圭, 「土地經濟學」, 서울大學校出版部, 1984.